

EU, 미국 현미 수입 허용

2005년 2월 28일 미국 통상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산 현미 수출에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랜 기간에 걸친 논쟁이 불식되었으며,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철회 조치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의 결과로 1999년 이후 연간 3,300만달러 규모로 수출되던 미국산 현미의 유럽 시장 접근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EU는 미국산 현미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2004년 9월 1일 EU는 쌀 수입시스템을 변경하여, WTO 협약에서 결정된 의무수입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관세 의무사항을 변경할 경우 대상 품목의 주요 교역국은 이에 대해 교섭을 할 수 있다.

EU가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를 높인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미국은 자국이 수입하는 EU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메커니즘 변화를 통한 교역을 활성화한다. EU가 현미 수입량(basmati 품종 제외)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관세 수준은 자동적으로 톤당 30유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교역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관세를 톤당 42.5유로 수준으로 유지한다. 수입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면, EU는 관세를 상한 수준인 톤당 65유로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안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EU의 수입 기준 수준(import reference level)은 이후의 성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문과 투명성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수입정책 입안을 활성화한다.

(4) 미국은 WTO 권리(Article XXIV III I)를 계속 유지한다.

출처: 미국농업부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